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이 초등학생 자녀의 자기조절을 통해 자기관리기술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al Beliefs and Mother-Child Attachment on Children's Self Management Skills through Self-Regulation

권보라(Bo Ra Kwon) · 장영은(Young Eun Chang)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and Housing Environment,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aim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al beliefs and mother-child attachment on school-aged children's time management and life management skills through the mediation effects of children's self-regulation. Study participants included a total of 317 fifth- and sixth-grade children at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area, and their 317 mothers. Children and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adapted as the main analysis technique. The findings were the following: First, mothers' parental beliefs that emphasize the child's independenc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greater self-regulation ability in children, indicated by cognitive, motivational, and behavior regulation. Second, better quality of mother-child attachment perceived by children was also found to predict greater self-regulation in children. Third, children's self-regulation was strongly related to time and life management skills. When the child is better at self control, the child showed greater management skills, both in time and everyday life. Finally, as hypothesized, the test yielded a significant mediation effect of self-regulation in the association from mothers' parental beliefs and mother-child attachment to children's time and life management skills. The findings suggested the important role of parental beliefs about child rearing and attachment between mother and child in developing self-regulation and management skills of school-aged children.

주제어(Keywords) : 양육신념(parental beliefs), 애착(attachment), 자기조절(self-regulation), 시간관리(time management), 생활관리 (life management)

I. 서론

자기조절은 아동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이후 학업성취 및 절제력, 청소년 시기의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의 제어 뿐 아니라 성인기 원만한 사회생활을 예측하는 의미 있는 능력이다 [6, 14]. Heckman 외는 IQ나 학력평가식의 성취도 점수에 비해 절제나 정서적 자기조절과 같은 비

인지적인 기술이 학령기의 학업성취 뿐 아니라 성인기의 성공적인 삶의 더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주장하고 있어, 아동기 자기조절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14]. 아동기의 자기조절능력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관리능력으로 이어지고, 보다 나은 자기관리능력은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등 학교적응에 유리한 능력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단 시일 내에 집중 훈련으로 얻을

Corresponding Author : Young Eun Chang,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72-1 Nae-Ri, Daedeok-Myeon, Anseong-Si, Gyeonggi-Do, 456-756, Korea Tel: +82-31-670-4789, Fax: +82-31-675-4746, E-mail: yechang@cau.ac.kr

© Copyright 2012,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수 있는 능력이 아니므로, 유소년기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자녀관계와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함양되어야 하는데[22], 대다수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습행동을 비롯하여 대인행동·여가활동·취업준비·일상생활습관 등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26]. 이에 아동의 자기관리능력과 이를 예측하는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된 부모변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자기관리능력을 예측하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아동의 자기조절의 발달은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과 양육행동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6]. 그 중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이다. Kohn에 따르면, (a)부모가 속한 사회적 맥락의 요소들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목표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b) 이러한 가치들은 부모의 양육실재에 차이를 가지고 오고, (c) 양육행동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적 결과의 차이로 나타난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가치관은 양육행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녀에게 전달되며, 그 결과 자녀의 다양한 발달적 특성들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행동의 특성과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를 밝히려 노력해왔는데, 그 양육행동의 기반에는 부모의 양육신념이라는 기저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28].

부모들은 나름의 자녀양육과 아동발달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가지고 있다. 즉, 특정 과업을 성취하는 적절한 연령, 자신의 자녀들이 가졌으면 하는 자질, 부모가 자녀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영역 또는 학교 성취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해 다양한 믿음과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11, 12, 36, 38]. 이후 다양한 연구들은 양육신념과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부모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인지적 발달 및 학업성취 간에 의미있는 관계들이 밝혀졌다. 부모가 진보적인 성향의 양육을 하고, 자녀를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할 경우, 자녀들은 더 나은 학업성취를 보였는데[43, 44], Kohn에 따르면 부모의 신념에 따라 형성된 아동의 자기감독(self-direction), 즉 주도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며,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사고하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기조절능력이 이런 성취와 관련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9]. 실제로 Moon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부모의 독립심을 중요시 여기는 양육신념이 자녀의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39].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신념에 따른 학업성취를 연구함에 있어, 학업성취라는 수치적 결과가 나오기 이전의 아동의 자

기조절 및 관리능력의 역할을 동시에 살펴본 경우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양육신념이 유아의 행동문제[25, 31], 유아기 사회적 능력[21, 34], 유아의 창의성[30], 아동의 자기능력지각[50, 51], 아동의 학습적 성취와 자신감[18], 아동의 자기지각[25] 또는 자기조절능력[39, 49]과 가지는 관계에 대해 살펴거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을 살펴보는 방식[1, 3]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자기조절능력을 통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생활관리 및 시간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양육신념과 더불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양육관련 요인은 부모-자녀 간 애착이다. Bowlby는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삶에 대해서 느끼는 가장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로서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소이며 영아기의 생존수단인 동시에 전 생애를 통한 성격발달의 적응적 기제라고 하였다[7]. 부모-자녀 간 애착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되는데, Bowlby는 영아기 애착은 생물학적 통제시스템을 발전시키며, 이런 조절능력은 적응과 대처능력이라는 생존에 필수적인 정신적 능력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았다[7]. Bowlby가 제시한 애착과 대처메카니즘 간의 관계를 뇌과학 분야에서 연구해 온 Schore에 따르면, 영아기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의 발달은 환경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우뇌의 변연계와 자동신경시스템(autonomic nervous system: ANS)을 활성화하여, 인간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다양한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및 새로움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데 기여한다[7, 45]. 이런 효율적인 우뇌의 기능은 이후 생애에 지속되는 발달단계에 있어 적절한 성장을 위한 탄력성요인(resilience factor)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Volling 외는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이며 정서적 가용성을 많이 보여줄수록 영아의 초기 자기조절발달의 신호라 볼 수 있는 의식적인 주의집중능력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53]. Keller 외 역시 비교문화적 연구에서 어머니가 상호작용에서 주는 자극과 신체적인 접촉이 이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밝혔다[20].

애착은 영아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부모와의 관계의 특성이지만, 그 발달과 영향력은 아동기와 성인기에 이르는 장기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Bowlby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7]. 다시 말해 학령기 애착은 양육자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밀접한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촉진하며,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Belsky 외는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애착을 포함하는 어머니양육변인이

청소년, 특히 여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4].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에 따르면[32],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가 더 우수한 자기조절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정된 어머니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환경에 대한 통제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정서적 행동적 대응양식이 긍정적이므로 자신의 행동과 사고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자기조절능력에 있어 유리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결론 내린 바 있다[32]. 반면 불안애착의 아동은 사회적 행동과 주의집중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의 결핍으로 행동상의 문제를 보일 수 있으며, 정서조절과 행동조절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47]. 또한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자기조절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7]. 해외 연구들도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자기조절능력 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5, 46, 48].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연구대상을 학령전기 영유아로 한정하고 있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어머니의 애착과 자기관리와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지만, 온정적인 양육행동 및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지지와 자기관리에 관한 연구들은 다소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성취적이고 자율적이고 애정적일수록 자녀가 시간관리를 잘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부모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인식이 적은 자녀들이 시간 사용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17, 23]도 있다. 또한 어머니의 지지가 자녀들의 성취동기와 문제해결능력을 높여 주고[33] 어머니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사용시간을 다시 점검하고 평가해 보는 과정을 가지고 그 결과를 다음의 시간사용계획에 반영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19].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자녀가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은 자기조절능력과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그 경로에 대한 연구가 부재함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초등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자기조절능력과 자기관리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Figure 1에 개념적 모델로 제시되었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은 초등학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을 예측하는가?
- <연구문제 2-1> 초등학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생활관리 기술을 예측하는가?
- <연구문제 2-2> 초등학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시간관

리기술을 예측하는가?

- <연구문제 3-1> 초등학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이 생활관리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는가?
- <연구문제 3-2> 초등학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이 시간관리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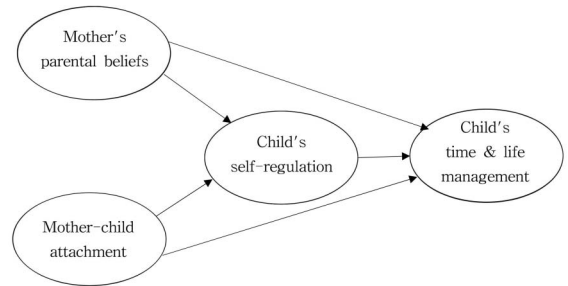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model.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를 다니는 5·6학년 아동과 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총 317쌍을 선정하였다. 2011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명의 아동과 그 어머니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와 신뢰도를 통해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3곳을 선정하여, 350명의 아동과 그의 어머니 350명에게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688부, 344쌍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부실 기재한 설문지를 제외한 634부, 317쌍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아가 156명(49.2%), 여아가 161명(50.8%)로 1.6%의 차이로 여아가 많았다. 5학년이 182명(57.4%), 6학년이 135명(42.6%)로 5학년이 4.8% 많았다.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40대가 221명(69.7%), 30대는 74명(23.3%), 50대가 13명(4.1%)로 40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졸이 8명(2.5%), 고졸이 154명(48.6%), 대학교 졸업이 82명(25.9%), 대학원 이상 학력 소지자는 7명(7.2%)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200만원대 미만' 40명(12.6%), '200만원대' 75명(23.7%), '300만원대' 84(26.5%), '400만원대' 이 63명(19.9%), '500만원대' 가 30명(9.5%), '600만원대 및 이상' 이 23명(7.3%)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신념은 Okagaki 외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자녀양육신념척도(Child-Rearing Beliefs Scales)를 변안, 본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 수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43]. 이들의 원 척도는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 창의적 기술의 발달, 순응적 행동의 발달, 일상 생활기술의 발달의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선행연구[39]와 요인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제해결기술의 발달, 창의적 기술의 발달, 일상 생활기술의 발달의 세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신념이라는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각 변인은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기술에 부모가 얼마나 도움을 주고, 그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믿는지를 질문하는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의 양육신념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을 소유한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66, .88$ 로 나타났다.

2) 어머니 애착

어머니 애착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애착으로서, Armsden 외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척도 개정본(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에 기초하여 초등학교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척도[24] 중 어머니 애착을 발췌·수정하여 사용하였다[2].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어머니 애착은 의사소통(9 문항), 신뢰(10문항), 소외감(6문항)의 세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 어머니 애착의 잠재 변인은 이 세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대상에서 애착 척도의 내적인 신뢰도(Cronbach's α)는 의사소통 .88, 신뢰 .74, 소외감 .75를 나타냈다.

3) 자기조절능력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Miller가 청소년이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학업과 사회적 상황 간의 이론 구성을 바탕으로 개발한 의사결정능력척도(Decision Making Competency Inventory)를 재구성한 척도[15] 중 신뢰도가 낮은 3개의 문항을 제외한 총 2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37].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인지적 조절, 행동적 조절, 동기적 조절 등 3개의 하위영역에서 측정되었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72, .62$ 였다.

4) 시간관리능력

Oh 외의 초등학교를 위한 시간관리능력 평가 척도[41]와

Lee의 시간관리척도를 기초로 초등학교 수준에 이해가 쉽도록 27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아동의 시간관리능력을 측정하였다[35]. 이 척도는 아동의 시간 계획(12문항), 관리유지(9 문항), 평가(6문항)의 세 하위요인을 측정하며, 본 연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얻어진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와 .84, .86 이었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 어머니-자녀 애착,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자녀의 시간관리능력, 자녀의 생활관리능력의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측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Table 2에는 변인들 간의 일차상관관계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모델에 포함된 변인들 간에 적절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모델구성절차로 진행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자녀의 시간관리 기술과 자기관리기술을 예측한 모델의 분석결과는 각각 Figure 2와 Figure 3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어머니가 자녀의 독립심을 장려하는 신념을 가졌을 때, 자녀는 더 나은 자기조절능력을 보여주었다 ($\beta = .26, p < .0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analytic variables

		M	SD	N
Parental belief	Problem solving	18.47	3.23	317
	Creative	13.27	2.69	317
	Practical	32.68	5.90	317
Attachment	Communication	32.80	7.66	317
	Trust	35.96	6.10	317
	Alienation	22.98	4.62	317
Self regulation	Cognitive	32.70	7.67	317
	Motivational	24.17	4.98	316
	Behavioral	25.35	4.20	315
Life management	Self help skills	24.90	4.96	317
	Health	25.58	5.28	316
	Academic	32.20	5.14	316
	Relationship	26.07	5.56	317
Time management	Monetary	21.29	6.16	316
	Planning	36.00	9.01	317
	Performance	28.03	6.37	317
	Evaluation	16.65	4.94	317

Table 2.
Zero-order correlations between the analytical variables (N = 3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	.68***															
3	.65***	.60**														
4	.09	.05	.03													
5	.07	.04	.00	.83***												
6	-.00	-.02	-.01	.48***	.38***											
7	.20**	.17**	.11	.44***	.45***	.12*										
8	.14*	.08	.11	.46***	.44***	.20***	.56***									
9	.07	.02	.05	.44***	.37***	.43***	.38***	.48***								
10	.18**	.11	.10	.55***	.52***	.22***	.56***	.52***	.37***							
11	.09	.05	.02	.47***	.46***	.15**	.54***	.47***	.28***	.59***						
12	.23***	.13*	.12*	.48***	.48***	.18**	.63***	.54***	.42***	.66***	.57***					
13	.21	.14*	.10	.53***	.53***	.20***	.55***	.48***	.38***	.48***	.55***	.59***				
14	.08	.05	.05	.35***	.30***	.10	.54***	.38***	.32***	.50***	.50***	.55***	.36***			
15	.19	.14*	.12*	.39***	.35***	.11	.64***	.43***	.34***	.57***	.48***	.64***	.45***	.59***		
16	.20	.17**	.11	.40***	.34***	.14*	.61***	.42***	.30***	.60***	.50***	.64***	.44***	.55***	.82***	
17	.17	.14*	.12*	.35***	.29***	.03	.56***	.37***	.26***	.51***	.41***	.59***	.38***	.52***	.74***	.76***

Note. ① Parental beliefs: Problem solving ② Parental beliefs: Creative ③ Parental beliefs: Practical ④ Attachment: Communication ⑤ Attachment: Trust ⑥ Attachment: Alienation ⑦ Self regulation: Cognitive ⑧ Self regulation: Motivational ⑨ Self regulation: Behavioral ⑩ Life management: Self help skills ⑪ Life management: Health ⑫ Life management: Academic ⑬ Life management: Relationship ⑭ Life management: Monetary ⑮ Time management: Planning ⑯ Time management: Performance ⑰ Time management: Evaluation

* $p < .05$, ** $p < .01$, *** $p < .001$

($\beta = .57, p < .001$). 초등학교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이 우수할 때, 생활관리, 건강, 학업, 대인관계, 그리고 금전적인 관리기술을 의미하는 생활관리기술 역시 더 잘 발달한 것으로 나타나 ($\beta = .96, p < .00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 →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 생활관리기술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3에 제시된 효과분석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자녀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통해 자녀의 생활관리기술에 미치는 간접효과(표준화계수 = .11, $p < .05$)와 어머니-자녀 애착이 자녀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통해 생활관리기술에 미치는 간접효과(표준화계수 = .43, $p < .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인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역시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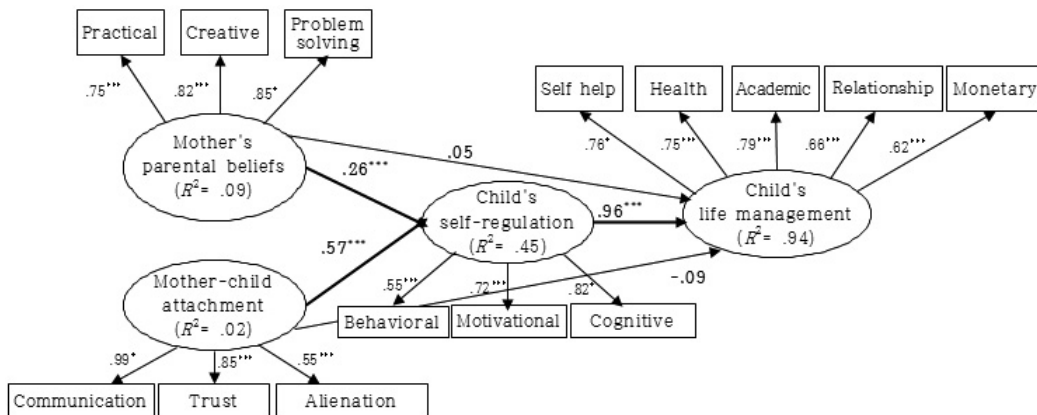


Figure 2. SEM model predicting child's life management skills. Coefficients are standardized. $\chi^2 = 181.33, \chi^2/df = 1.619, CFI = .945, TLI = .916, RMSEA = .060$. Child gender, mother age, mother education and family income are included as controls but not depicted in the figure.

*** $p < .001$, + constrained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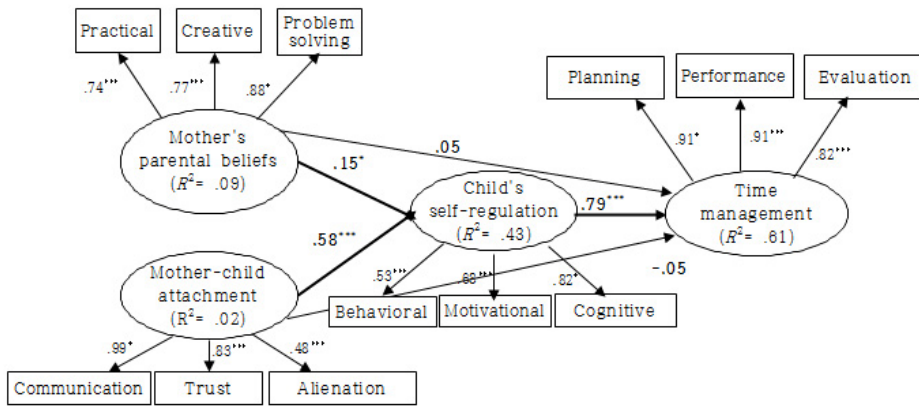


Figure 3. SEM model predicting child's time management skills. Coefficients are standardized. $\chi^2 = 189.00$, $\chi^2/df = 2.333$, CFI = .950, TLI = .915, RMSEA = .065. Child gender, mother age, mother education and family income are included as controls but not depicted in the figure.

* $p < .05$, *** $p < .001$, + constrained variable.

Table 3. The decomposition of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Child life management			Child time management		
	Total	Direct	Indirect	Total	Direct	Indirect
Parental Beliefs	.14*	.01	.12*	.16**	.05	.11*
Attachment	.62**	.14**	.49**	.40**	-.03	.43**
Self-Regulation	.86**	.86**	—	.78**	.78**	—

증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신념이나 자녀가 지각한 애착이 아동의 생활관리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와 표준화계수 비교결과 어머니-자녀 간 애착이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비해 더 강하게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생활관리기술을 예측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생활관리기술을 예측하는 이 구조방정식모델은 $\chi^2 = 181.33$, $\chi^2/df = 1.619$, CFI = .945, TLI = .916, RMSEA = .060의 모델적합도 지수를 보여주어 검증하고자 한 모델이 본 연구의 데이터에 우수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자녀의 시간관리능력을 예측하는 구조방정식모델 검증의 결과는 Figure 3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아동의 생활관리기술과 유사하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어머니가 자녀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양육신념을 소유한 경우, 초등학생 자녀는 자신의 행동과 동기, 그리고 인지를 조절하는 자기조절 능력에 있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5$, $p < .05$). 어머니-자녀 간 애착이 긍정적으로 발달한 경우 자녀 역시 자기조절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8$, $p < .001$).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은 시간조절기술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beta = .79$, $p < .001$).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 →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 시간관리기술의 영향력의 흐름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과 자녀의 시간관리기술을 매개하는 자기조절능력의 효과 (각각 표준화 계수 = .11, $p < .05$; .43, $p < .01$)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Table 3 참조).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크기를 비교한 결과 어머니-자녀 간 애착이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비해 더 강하게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시간관리기술을 예측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생활관리기술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육신념과 애착 모두 아동의 시간관리기술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았다. 모델적합도 지수는 모두 우수한 수준으로 $\chi^2 = 189.00$, $\chi^2/df = 2.333$, CFI = .950, TLI = .915, RMSEA = .065 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의 특성이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기관리기술을 예측하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특성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에 초점을 맞추어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부모의 독립심을 중요시 여기는 양육신념이 자녀의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힌 연구[39]를 지지한다. 또한 Okagaki 외의 연구에서 부모가 진보적인 성향의 양육을 하고, 자녀를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할 경우, 자녀들은 더 나은 학업성취를 보였는데[43], 그 기계로 예상되었던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즉, Kohn은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을 중요시 여기는 양육신념을 가진 경우,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감독 및 자기조절능력이 발달될 것으로 보았는데[29], 그러한 그의 가정을 본 연구결과는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애착이 자기조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는데, 이는 온정적인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유의한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4]를 지지하며, 또한 어머니 애착이 초등학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을 예측한다고 했던 연구결과[32] 역시 지지한다. 애착은 주로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왔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들이 느끼는 부모와의 애착이 학령기 학업발달과 또래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조절능력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 애착연구의 종단적 접근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양육신념과 애착이 자기조절이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자녀 애착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시간관리기술 및 생활관리기술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자기조절능력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용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나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간 외에 학업, 금전, 대인관계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기술 역시 더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4학년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수법의 적용을 통해 숙제활동 등에서 효과적인 시간관리기술의 향상을 발견한 결과[52]와 일맥상통하며, 자기조절학습프로그램이 아동의 시간관리나 학업관리능력을 향상시키거나[35, 42], 자기조절 능력 중 특히 내적통제성이 높은 아동이 수업준비물과 과제물을 스스로 챙기고 정리돈을 잘하는 등 자신의 일상생활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시간관리 및 자기생활관리에서도 더 나은 능력을 보였다는 국내연구 결과[16, 19] 역시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양육신념

과 애착이 시간관리기술 및 생활관리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자녀의 자기조절능력→시간관리기술 및 생활관리기술의 경로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한 매개효과가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최근 자기주도학습이 주목받으면서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결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탐색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시행하며,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8]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주도학습을 가능하게 할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부모의 양육특성, 특히 자녀의 능력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자녀의 주도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양육신념과, 자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자녀에 대한 신념을 표현하며, 자녀를 따뜻하게 감싸는 애착양육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미흡한 자기관리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특성의 역할을 탐색하였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생활관리나 시간관리연구는 주로 주부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오다가[9, 10, 13, 17, 40] 최근 들어 초등학교 아동 및 청소년의 관리능력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9, 41, 42]. 하지만 부모의 양육특성이 이러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영향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본 연구결과가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을 통해 자기관리기술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영향력의 경로를 탐색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스스로 응답한 양육신념,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애착, 자녀가 응답한 자기조절 및 자기관리기술 등 다양한 정보제공원에 의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기공선성의 우려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아동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데에 일반화의 한계를 지적하는 바이다. 그리고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변인으로 사용하여, 교사나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나 타당화된 실험 및 표준화된 평가도구로 측정된 자기조절능력이 가지는 객관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관찰 또는 측정된 자기조절능력을 포함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며, 영유아기를 통해 형성된 부모-자녀애착이 학령기 자녀의 자기조절과 자기관리 능력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를 기대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특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및 자기관리 기술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역시 흥미로운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더하여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애착이 자녀의 자기 조절능력을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특징을 연구에 포함시킨다면,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발달적 결과를 예측하는 보다 구체적인 영향력의 경로를 밝혀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References

1. Ahn, J. Y. (2000).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 Mitchell, J. (1991).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ce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683-697.
3. Baik, S. H. (2006). *Difference of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belief depending on psychological tendency of mo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4. Belsky, J., & Beaver, K. M. (2011). Cumulative-genetic plasticity, parenting and adolescent self-regul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52, 619-626.
5. Belsky, J., Rha, J. H., & Park, S. Y. (2000). Exploring reciprocal parent and child effects in the case of child inhibition in US and Korean samp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338-347.
6. Bigner, J. (2009). *Parent-child relationship: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New Jersey: Prentice Hall.
7.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8. Chae, S. J., Shin, J. S., & Lee, Y. S. (2004). Comparison of the academic achievement by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6(3), 281-288.
9. Choi, S. I. (1993). *A systemic approach to the relations among time conflict, time management strategies, and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woman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10. Doo, K. J. (2002). Effect measurement after time management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Social Science Research*, 15, 1-14.
11.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12. Goodnow, J. J., & Collins, A. W. (1991). *Development according to parents: The natur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parents' ideas*. Hillsdale, NJ: Erlbaum.
13. Han, K. M. (1991). *Life time usage and time conflict of working wiv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Gwangju, Korea.
14. Heckman, J., & Rubinstein, Y. (2001). The importance of noncognitive skills: Lessons from the GED testing progra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1(2), 145-149.
15. Huh, J. K. (2003). *A study of scal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and related variables children in the school 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6. Jang, Y. O. (1994). The influences of family life cycle stages and perceived time pressure on role conflict in housewife-teachers.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2(2), 175-186.
17. Jang, Y. O., & Jeon, S. L. (2005). The differences in human resource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3(2), 531-554.
18. Jeon, K. S. (1992).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the beliefs of parents and children, the congruence of the two,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perceived compet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 Jeong, H. S., & Jang, Y. O. (2009).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ime management ability, self management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7), 45-58.
20. Keller, H., Yovsi, R., Borke, J., Kartner, J., Jensen, H., & Papaligoura, Z. (2004). Developmental consequences of early parenting experiences: Self-recognition and self-regulation in three cultural communities. *Child Development*, 75(6), 1745-1760.
21. Kim, E. J. (2001). *Father's socialization beliefs as related*

- to child social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2. Kim, H. Y., & Kim, K. S. (2010). The development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for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1), 21-42.
 23. Kim, J. A. (2006).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 an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24. Kim, J. A. (2007). *Influences of parental attachment of children's perception on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s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5. Kim, J. M. (1998).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beliefs and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6. Kim, K. J. (2003). The development of self-modification program for personal adjustment, *Th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1, 69-133.
 27. Kim, Y. H., & Chung, H. J. (2007). The effect of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o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8(4), 671-679.
 28. Kohn, M. L. (1969).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 Homewood, IL: Dorsey.
 29. Kohn, M. L. (1979). The effects of social class on parental values and practices. In D. Reiss & H. Hoffman (Eds.), *The American family: Dying or developing* (pp. 45-68). New York, NY: Plenum.
 30. Kwon, J. W. (2003). *Maternal beliefs and children's crea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31. Lee, E. J., & Min, H. Y. (2006). Influence of parent's parenting values and beliefs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5(4), 541-549.
 32. Lee, J. Y., & Baek, J. B. (2009).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elf-control ability in the relationship of mother attachments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8(1), 57-78.
 33. Lee, K. N. (2006). Individual and parental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5), 161-174.
 34. Lee, W. H. (1997). *A Study on the relation among parenting attitude, parental beliefs, and infant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35. Lee, W. W.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management and the school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36. McGillicuddy-De Lisi, A. V., & Sigel, I. E. (1995). Parental belief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4 (pp. 333-358). NJ: Erlbaum.
 37. Miller, D. C. (2000). *Adolescents' decision making in academic and social contexts: A self-regulation perspectiv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U.S.A.
 38.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39. Moon, S. I. (2008). *A study on the parental belief and self-regulation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40. Moon, S. J. (1990). A comparative study on systemic approach to home management theory building (1). *Ewha Home Economic 60th Years Faculty Research*, 199-145.
 41. Oh, H. J., & Jung, J. Y. (2006). A study on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llowing the capability of time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9(2), 101-112.
 42. Oh, J. H. (2010). *The effect of time management program on the time manag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National University of Jeju, Jeju, Korea.
 43. Okagaki, L., & Sternberg, R. J. (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36-56.
 44. Schaefer, E. S., & Edgerton, M. (1985). Parent and child correlates of parental modernity. In I. E. Siger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287-318). Hillsdale, NJ: Erlbaum.
45. Schore, A. N. (2001). Effects of a secure attachment relationship on right brain development, affect regulation and infant mental health.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2, 7-66.
46. Shamir-Essakow, G., Ungerer, J. A., Rapee, R., & Safier, R. (2004). Caregiving representations of mothers of behaviorally inhibited and uninhibited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0(6), 899-910.
47. Shin, H. W. (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Rating Scale (S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48. Smith, M., & Walden, T. (2001). An exploration of African-American preschool-aged children's behavioral regulation in emotionally arousing situations, *Child Study Journal*, 31, 13-45.
49. Sohn, K. H. (2001).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beliefs, ego-resilience and self-regulation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50. Song, S., & Song, H. O.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with maternal beliefs on the child rearing and children's self-perception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2(4), 417-432.
51. Song, S., & Song, H. O.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with fathers' beliefs on child rearing & children's self-perception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1), 197-208.
52. Stoeger, H., & Ziegler, A. (2008). Evaluation of a classroom based training to improve self-regulation in time management tasks during homework activities with fourth graders. *Metacognition and Learning*, 3(3), 207-230.
53. Volling, B. L., McElwain, N. L., Notaro, P. C., & Herrera, C. (2002). Parents' emotional availability and infant emotional competence: Predictors of parent-infant attachment and emerging self-regul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4), 447-465.

접 수 일 : 2012년 6월 26일
 심사시작일 : 2012년 7월 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9월 5일